

지구촌 양계뉴스

●●● 미국

2011년 USDA 가금육 전망

최근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에서 발표한 가축, 유제품, 가금류(Livestock, Dairy & Poultry) 전망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산 브로일러 생산 예상량은 2010년보다 1% 증가한 373억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브로일러 생산량은 2011년 상반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료비 증가로 인해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경제 연구 서비스 전문가가 밝혔다.

2008년 브로일러 생산량이 최고 기록을 갱신했으나, 에너지 및 사료비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에 의하여 2009년 업체들은 생산량을 4%까지 줄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해 그 생산량이 3% 올랐다.

2011년 전세계 브로일러 수요는 3%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부분적인 회복에 의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이 회복세를 되찾으면서 올해 성장률은 4.4%가 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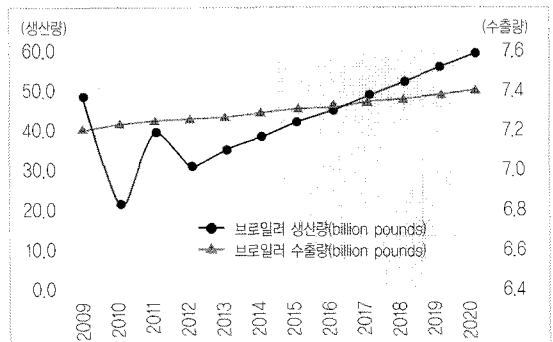
2011년 선진경제는 2.5%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도상국 경제는 6.5%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2011년 수출 예상량은 2010년보다 약간 감소하여 66억 5천만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 수입량의 급격한 감소와 중국 무역 장벽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수출량이 다소 감소하고 생산량이 소량 증가하면서 2011년 최종 보유 예상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안 미국의 브로일러 생산 예상량은 다른 육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브로일러 고유의 이점인 사육 및 도축 전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2월 미국 농무부에서 발행한 농업 추정에 따르면, 브로일러의 생산량 및 수출량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참조).



〈표〉 미국 브로일러 생산량과 수출량

한편, 미국 가금육 생산자들은 브라질과 같은 주요 수출국과 강력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산 가금육 수출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평균적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 연합 수출량은 2020년까지 소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타이의 경우 수출량은 향후 10년 동안 각각 연간 2.6%, 3.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가분은 완전 요리된 가금육 제품에 한해서다.

과거에는 브라질산 가금육 수출량이 미국 수출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당했다. 이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요 수출 시장이 달랐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세계적인 가금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가금육의 자국 생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USDA, 미국가금육협회

●●● 중국

들가루 먹인 닭 발견 '충격'

중국에서 닭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광석의 일종인 중정석(重晶石, 황산바륨) 가루를 강제로 주입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경상보(重慶商報)는 충칭시 상공국과 공

안이 지난 5월 8일 새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고속도로 톨 게이트에서 중정석 가루를 주입한 닭을 신고가는 화물차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상공국과 공안 등은 적발된 닭 천여마리를 압수했다.

충칭시는 시장에서 산 닭의 소화기관에서 주먹만한 회백색의 이물질이 발견돼 만져보니 가루로 부서지는 바람에 닭을 먹기가 겁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현장조사를 실시, 해당 이물질이 중정석 가루라는 점을 밝혀냈다.

충칭시는 아울러 닭 판매업자가 중량을 늘리기 위해 중정석 가루를 닭 1마리당 300~500g씩 강제로 주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합동 단속을 펼쳤다.

닭 판매가격은 500g당 17위안(약 2,820원)에 달해 중정석 가루를 주입한 닭 판매업자는 닭 1마리당 최대 17위안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

중정석 가루를 주입한 닭이 인체에 해로운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중경상보는 전했다.

약 5년전 중국에서는 닭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진흙 덩어리를 주입한 일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 매일경제

●●● 닭고기 가격 '점점 오르네'



3월 중하순부터 중국 전역에서 닭고기 가격이 점차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농산물 가격지수 동향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생닭 가격이 조금

씩 올라 지난 3월 16일과 비교해 1.5% 가량 올랐으며, 전년과 대비해서는 15.6% 올랐다.

- 라오청(산둥)신문사

●●● 탄성 지닌 계란 노른자 화제

중국 시안(서안)에서 삶은 계란의 노른자가 탁구공 같은 탄성을 지닌 사례가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9일 중국 라오닝(요녕) 위성TV는 이 같은 계란을 구입한 한 가족의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안에 살고 있는 리(李) 씨의 가족은 평소 아침처럼 계란을 삶아 먹으려다 노른자가 탄성을 지닌 것을 발견했다.

이 삶은 계란의 노른자는 손가락에 어느 정도 힘을 가해도 으깨지지 않고 고무처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또한 낮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튕겨 오르는 모습을 보여 마치 탁구공을 연상하게 했다. 이 같은 탄력을 지닌 계란은 이에 앞서 중국 신장(신강), 창사(장사)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계란에 정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불신을 감추지 못했다.

- 티브이데일리

●●● 싱가포르 냉동육 소비의 확산

최근 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을 줄이기 위해 냉동 닭, 쇠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냉동육 가격은 냉장육에 비해 포장성, 생산의 용이함, 그리고 항공 이송이 필요하지 않아 배송비가 절감되어 냉장육과 비교했을 때 약 20% 저렴하다.

싱가포르 슈퍼마켓에서 냉장 닭 날개는

\$17/2kg이나, 같은 중량의 냉동 닭 날개는 약 \$8.40이다. 가격적인 부분이 수요 증가의 주 원인이나, 냉동 기술의 향상으로 도축 후 즉시 급속 냉동하여 냉장육과 냉동육 맛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소비 증대의 원인이다.

싱가포르의 주요 냉동육 회사인 Angliss Singapore의 한달간 냉동 닭, 돼지고기, 양고기 매출은 5천톤 이상인데, 작년 동기 대비 사업이 5%~15% 성장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식품검역청(AVA)에 의하면 냉동육 수입 물량은 2005년 16,600톤에서 작년에는 27,600톤으로 3년 사이에 약 70% 정도 증가했다.

냉동 돈육에 대한 수입도 동기 대비 59% 성장했다. 양고기와 닭고기 역시 15% 성장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인 FairPrice는 브라질, 캐나다산 냉동육 수요가 늘자 아르헨티나산 등 신규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냉동육 소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점점 바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냉동 식품과 같은 빨리 조리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꼽았다.

- The Straits Times


●●● 캄보디아

늘어나는 가축으로 증가하는 사료 수요

캄보디아는 가축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성 사료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 수요의 50%에 가까운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사료용 조제품에 대한 수입량은 2009년 4,3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6% 늘어났다. 2005년과 비교하면 230% 증가한 수치로 매년 지속적으로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수입되는 동물성 사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 고양이용 사료의 수입량은 미비하며, 가장 많이 수입되는 제품은 양계용, 양돈용, 축산용이 가장 많다.

캄보디아 관세청은 사료 제품 수입 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오직 부과세 10%만을 부과한다. 2009년 기준으로 사료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 베트남, 인도 순으로 태국이 캄보디아 동물성 사료 공급에 50%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작물 생산이 가능하며, 가축업 종사자가 많아지는 현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사료 생산업은 전망은 밝다. 하지만 기술 부족, 열악한 도로상황 등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전량 현지 생산으로 사료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코트라 프놈펜 KBC 자체조사, 캄보디아 농업산림수산부, 캄보디아 언론 매체